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2008 베이징올림픽 축구 아시아 2차 예선 F조 2차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의 경기가 열린 15일 새벽(한국시간) 아부다비 알 나얀 경기장에서 한국의 한동원이 세번째 골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조직력·득점력 'OK'…모처럼 화끈했다

베어벡호, 올림픽 亞예선 UAE전 3-1 완승

한동원 선취·쐐기골 성공…박주영 공백 메워

22세 이하 올림픽축구대표팀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상대로 오랜만에 안정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화끈한 득점력을 선보이며 본선 진출을 향해 순항에 나섰다.

핌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은 15일(한국시간) UAE와 치른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2차 예선 2차전 원정경기에서 한동원(성남·2골)과 이승현(부산)이 3골을 합작해 내면서 3-1 완승을 거뒀다.

특히 좌우 측면 공격수로 선발출전한 이근호(대구)와 이승현의 빠른 침투가 돋보였다.

지난달 28일 예멘과 1차전에서 4-4-2 전술을 내세웠던 베어벡 감독은 양동현(울산)을 원톱으로 내세운 4-3-3 전술로 UAE를 상대했다.

한동원-백지훈(수원)-오장은(울산)이 중앙 미드필더로서 양동현의 뒤를 받쳐주고 이근호와 이승현이 번갈아가며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면서 UAE의 수비진을 흔들었다.

예멘전에서 좌우 날개와 최전방 공격수들이 겹치면서 우왕좌왕했던 것과 달리 이날 한국은 양동현을 원톱으로 포스트 플레이에 배치하고 한동원이 처진 스트라이커로서 배후 침투를 노리는 전술을 채택했다.

좌우 측면 공격수와 윙백 요원들의 활발한 오버래핑과 더불어 장신 수비수 강민수(전남·184㎝)의 적극적인 공격가담은 최전방에서 공격인원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었다.

예멘과 1차전에서 늦은 패스 타이밍과 부정확한 연결로 역습기회를 내줬던 것과 달리 이날 한국은 정교한 패스를 통한 측면 침투를 앞세워 UAE를 압도했다.

베어벡 감독의 선수 교체 시기도 적절했다. 전반전에 UAE를 압도했던 한국은 후반 들어 갑자기 조직력이 흔들리면서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고, 베어벡 감독은 즉시 김승용과 기성용을 투입해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김승용은 후반 34분 양동현의 쐐기골에 도움을 주면서 베어벡 감독의 의도를 100% 소화해 냈다.

박성화 전 청소년축구대표팀 감독은 "측면 전개에 의한 크로스 연결이 날카로웠다"며 "배후침투와 패스가 좋았다"고 분석했다.

박 감독은 또 "이근호를 활용한 측면 공략이 주요했다"며 "공격의 속도도 날카로웠고 패스 타이밍도 좋았다"고 칭찬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추가 징계

'예멘전 배치기' 박주영

향후 2경기 더 출전 불가

중동에서 짜릿한 승전보를 전해온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우울한 소식을 접했다.

상대 선수를 '배치기'로 밀어 퇴장당한 박주영(22·FC서울·사진)이 추가로 두 경기를 더 뛰지 못한다는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5일박주영의 행위를 심의한 결과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2차 예선 향후 두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추가 제재를 확정해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했다.

박주영은 당초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원정경기 한 게임만 뛰지 못하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퇴장으로 인한 자동 출전 정지일 뿐 FIFA는 별도로 추가 징계를 내렸다.

따라서 박주영은 오는 28일 안산에서 열릴 우즈베키스탄과 예선 3차전에 이어 다음달 18일 우즈베키스탄 원정 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박주영은 지난 달 28일 수원에서 열린 예멘과 예선 첫 경기에서 후반 40분 백태클을 당해 넘어졌다 일어선 뒤 예멘 수비수 모하나드 하산 야신(18·알 미나)에게 다가가 배를 불쑥 내밀어 상대방을 밀어뜨려 곧바로 레드 카드를 받았다.

박주영은 5월 16일 예멘과 원정 경기에서 올림픽호에 다시 탑승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림픽호는 박주영의 공백에 따라 UAE전에서 두 골을 뽑아낸 한동원(21·성남 일화)과 예멘전 결승골의 주인공 양동현(21·울산 현대) 등을 계속 중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포커방식' 골프대회 열린다

5월 美서 개최…180명, 참가비 1만달러

돈 떨어지거나, 승산 없으면 포기 가능

총상금 75만 달러가 걸린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5월13일(이하 한국시간)부터 닷새 동안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프림 밸리 골프 코스에서 펼쳐진다.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월드시리즈 오브 골프'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순위에 따라 상금을 나눠갖는 일반 방식과는 달리 '포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며 우승 상금은 25만 달러.

출전자 180명은 1만 달러를 참가비로 내야 하고 실력이 비슷한 선수와 1대1 대결을 벌여 스트로크를 할 때마다 '레이즈', '콜', '체크', '폴드'를 결정해 돈을 걸어야 한다.

따라서 캐디는 코스 조언 뿐 아니라 재정 상담역까지 맡게 된다.

물론 돈이 떨어지거나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 카드를 접듯 중도에 경기를 포기해야 한다.

거액의 돈이 오가는 만큼 대회 출전 자격은 21세 이상으로 제한됐고 프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참가하지 못한다. /최재호기자 lion@

이영표 풀타임 출전

UEFA컵 브라가전 3-2 승…팀 8강 진출

이영표(30·토트넘·사진)가 2007 유럽축구연맹(UEFA)컵에서 풀타임 활약하며 팀의 8강 진출에 힘을 보탰다.

이영표는 15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 화이트 하트레인에서 열린 UEFA컵 16강 2차전 SC 브라가(포르투갈)와 홈경기에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해 교체 없이 전·후반 90분을 소화해 냈다.

토트넘은 후반 31분 스티드 말브랑크의 결승골이 터지며 3-2로 이겼고, 지난 9일 원정 1차전 3-2 승리를 합해 6-4로 8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토트넘은 1985년 UEFA컵 이후 22년 만에 이 대회 준준결승에 진출하는 기쁨을 맛봤다.

토트넘은 전반 24분 톰 허들스톤의 자책골이 나오며 0-1로 뒤졌지만, 불가리아 출신 스트라이커 디미타르 베르바토프의 맹활약으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베르바토프는 4분 뒤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전반 42분에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넘어온 프리킥 크로스를 가슴으로 받은 뒤 발리 슈팅으로 역전골을 성공시켰다.

토트넘은 후반 16분 SC 브라가에 동점골을 내줬지만 후반 31분 베르바토프와 패스를 주고 받던 말브랑크가 결승골을 터트리며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주먹질' 발렌시아 나바로

7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

유럽축구연맹(UEFA)이 경기 후 상대 선수에게 주먹질을 한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 수비수 다비드 나바로에게 7개월 출전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나바로는 지난 7일(이하 한국시간) 열린 인터밀란(이탈리아)과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홈경기(0-0 무)가 끝난 뒤 그라운드 위에서 양팀 선수들끼리 다툼이 벌어지자 인터밀란의 미드필더 니콜라스 부르디소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코를 가격했다.

부르디소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당시 교체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뿐 벤치만 지켰던 나바로는 주먹질을 한 뒤 도망쳐 인터밀란 선수들에게 쫓기기도 했다.

UEFA 징계위원회는 15일 심판 경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비디오 판독을 통해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나바로에게 7개월 간 출전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